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에서 도시 관련 내용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수업 적용 방안 모색

이동민* · 권은주** · 최재영***

An Approach on the Primary Geography Multi-scalar Learning Focusing on Urban Contents

Dong-min Lee* · Eunju Kwon** · Jae Yung Choi***

요약 : 본 연구는 초등학교 사회과 지리영역에서 도시 관련 내용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수업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도시는 다양한 기능과 경관이 복합적인 패턴을 이루며 구성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한 가지 스케일의 단편적인 이미지로 고착하여 이해하는 대신 '다중스케일적 공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활 무대인 동시에 다수의 초등학생들의 일상생활과도 관련되는 공간이기에, 도시 공간의 다중스케일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교육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주제로 한 다중스케일적 학습활동을 구성해 보았다. 이 사례에서는 서울에 대하여 '인구가 많은 도시',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지역인식의 단일스케일적 고착'에서 벗어나 스케일에 따른 다양한 인구 분포 및 이에 따른 스케일 간의 경관, 기능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을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시도가 실제 수업에서 활용 될 수 있다면, 학생들이 도시 공간, 나아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자 맥락이 될 다양한 장소, 공간, 지역 등을 보다 다중스케일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다중스케일적 접근, 다중스케일적 학습활동,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도시, 지역인식의 단일스케일적 고착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for the use of a multi-scalar approach to primary geography class focusing on urban contents. A city is a space with complex spatial pattern consisting of diverse functions and landscapes. Therefore, it needs to be approached as a multi-spatial space rather than as a fragmentary image fixed by a single-scalar recognition. The multi-scalar approach on urban space has particular educational importance because a city has a spatial context where children, including primary students, live and grow.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 multi-scalar instructional method of primary geography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City,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instructional method focused on overcoming the fixation of a regional recognition by a single scale, such as "Seoul is a crowded city" or "Seoul is the largest city in South Korea." A multi-scalar regional learning activity was developed to cultivat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scalar diversity of landscapes, population, and functions in Seoul, the capital of Korea. This attempt is expected to improve primary geography education, which can encourage primary students' more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f the diverse scalar spaces, places, and regions where they live, act, and grow.

Key Words : Multi-scalar approach, Multi-scalar learning activity, Primary geography education, City, The fixation of regional recognition of a single scale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초빙교수(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dr.dongminlee@gmail.com)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사과정(Ph.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agakbar@snu.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사수료(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mage7@snu.ac.kr)

I. 서론

‘아프리카는 열대기후와 건조기후만 존재하는 대륙’이라든가 ‘유럽은 그리스도교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이라는 식의 지역 서술은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열대기후 및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스케일에 따라서는 고원기후, 온대기후 등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으며, 유럽 역시 그리스도교 문화가 우세하다고는 하나 스케일을 좁혀 보면 이슬람교, 원시·토착 신앙 등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가 관찰되는 지역 또한 발견할 수 있다(김다원·한건수, 2012; 김종규 역, 2007). 즉, 어떠한 지역을 대륙, 국가 등 특정한 스케일에서만 바라보는 ‘지역인식의 단일스케일적 고착’ 문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몰이해와 오개념을 초래하여, 지리교육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이동민·최재영, 2015). 이러한 문제는 지리교육에서 지표상에 존재하는 장소나 지역 등에 대해 다양한 스케일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지리학 적 인식론인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도입,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동민·최재영(2015)은 아프리카의 기후를 주제로 한 다중스케일적 초등지리 수업 방안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흔히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 ‘열대기후, 건조기후만 존재하는 대륙’과 같이 단일스케일에 고착되어 이해함으로 발생하는 오개념을 최소화하고 보다 올바른 지역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와 세계지리 영역 수업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그런데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대륙과 같은 큰 스케일의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라든지 고장과 같은 작은 스케일의 지역에도 적용될 가능성 및 필요성을 지닌다. 일례로 신정엽(2015)은 시애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도시로서의 단편적인 이미지 외에도 도시 개척 및 대화재의 발생과 재건과 같은 역사적 요인에 의한 도시 경관의 변화, 다양한 지구와 근린들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지구별, 근린별로 상이한 문화와 정치·경제적 기능 등 스케일에 따라 다양성을 갖는 공간들이 역동적으로 구성된 도시로서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채희원·신정엽(2015) 또한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인구밀도, 주민들의 교육수준 및 연령, 주택유형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복잡다양한 하위구조들로 나뉘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같은 논의들은 아프리카 대륙과 같은 거대한 스케일의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스케일의 지역 또한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나아가 구미공단의 형성과정을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구미 지역의 유지 및 지역 출신 정치인, 구미 출신 재일교포 사업가 등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황진태·박배균(2014)의 연구는, 대륙 스케일의 자연지리적 현상(기후)뿐만 아니라 도시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인문지리적 현상(산업단지 조성) 역시 다중스케일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도시에 관련한 내용을 다중스케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의 핵심적인 내용 요소 중 하나인 ‘도시’를 단일스케일적으로 고착된 단편적인 이미지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다양한 스케일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공간은 지리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초등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적 맥락이자 환경, 스케일이라는 점에서(정진규, 2014),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을 통한 도시 관련 수업은 지리 교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그들의 공간적 삶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지역으로 서울특별시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대도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와 같은 특정 스케일에 고착된 단편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스케일에 따라 다양하게 관찰되는 인구 분포, 경관 등을 보다 다각적,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지리 교과의 중요한 내용 요소이자 그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공간이기도 한 도시를 다중스케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균형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초등학교 지리교육과 도시, 그리고 다중스케일적 접근

1. 도시의 지리교육적 의미

1) 지리교육 내용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도시가 갖는 중요성

도시는 오늘날 지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20세기 이후 도시지리학은 인문지

리학의 중요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대학 및 대학원에서도 도시지리학 관련 강좌들이 핵심적인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Kaplan *et al.*, 2014; Pacione, 2009). 높은 인구밀도와 각종 시설 및 인프라의 공간적 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 공간은 이로 인해 주거분리, 계층화, 현저한 건조환경, 교통망 등과 같은 체계적이고 패턴화된 공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도시지리학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현상이기도 하다(Kaplan *et al.*, 2014). 그리고 이 같은 도시의 공간적 특성은, 서론에서 언급한 신정엽(2015), 채희원·신정엽(2015)의 논의들이 시사하듯이 특정한 주제 또는 스케일에 국한된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닌 다양한 기능·경관·사회문화적 특성의 종합체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박철현(2016) 또한 중국 충칭(重慶)의 국가급 신구(國家級新區)¹⁾인 량강신구(兩江新區)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분석을 통해 량강신구를 초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이자 금융기지(글로벌 스케일), 중국 중앙정부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장소(국가 스케일), 충칭시 당국과 공산당의 활동과 영향력(지역 스케일) 등 스케일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도시가 지니는 공간적,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적용할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도시가 지리학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한 배경에는, 20세기 중·후반 이후의 전세계적인 급속한 도시화를 꼽을 수 있다. 20세기 중·후반 이후 선진국은 물론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 개도국들에서도 급격한 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져 21세기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이후의 도시화율이 90%에 육박할 정도이다(조명래, 2009; Schneider, 2010). 이처럼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 확산됨에 따라 도시지리학 연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도시화의 진전과 도시지리학 연구의 실시 및 연구논문 간행 빈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기도 하였다(Wang *et al.*, 2012).

이처럼 오늘날 지리학 연구에서 도시 공간이 중요시되면서, 도시는 지리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주제이자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또한 도시가 오늘날 사람들의 삶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Heffron and Downs,

2012; Lambert and Balderstone, 2010).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 상 초등 5학년 1학기에서 도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도시’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살기 좋은 우리 국토’ 단원의 성취기준에 포함된 인구분포의 특성과 문제점,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국토의 변화 등의 내용들은 도시 및 도시화와도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Kaplan *et al.*, 2014; Pacione, 2009). 초등 5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 1단원의 세 번째 주제인 ‘변화하는 우리 국토’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해 있다는 내용 등, 도시에 관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교육부, 2016:40-50). 따라서 우리나라 초등 사회과 지리교육 연구에서 도시라는 주제에 대한 접근의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

2) 삶의 터전으로서의 중요성: 아동의 도시지리

도시는 지리교육에서 중요시되는 주된 내용 지식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아동들이 활동하고 성장하는 공간이자 환경이기도 하다.²⁾ 그리고 아동들은 이러한 도시 공간에서 보고, 듣고, 행동한 경험들을 통해 그들 나름대로 도시 공간을 해석, 이해, 재현한다(정진규, 2014; Holloway *et al.*, 2010; Winchester, 1991). 정진규(2014)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아동의 도시지리는 그들 특유의 경험에 의해 체화된 일종의 ‘재현의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으로서의 성격을 띠기에 성인들에 의해 개념화, 제도화된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과는 차별화되는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아동의 도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 심상적 재현 등을 이해하는 일은 그들에게 도시와 도시지리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논의한 바 있다. Holloway *et al.*(2010)은 지리교육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학문적 지식과 교과 내용 중심의 지리교육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이 살고 있는 실제적이면서도 다층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 삶,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와 관련된다. 또한 Holloway *et al.*(2010)은 지역, 거주지, 국가 등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의 정체성과 시민성을 중시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2.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에서의 다중스케일적으로 도시를 바라볼 필요성

1) 다중스케일적 접근과 지리교육

다중스케일적 접근이란 지표 공간이나 장소, 지역 등을 다양한 스케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지리학적 인식론을 의미한다. 이는 공간 스케일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물로 보는 관점을 이론적 전제로 하며, 국가, 대륙, 지역 등의 공간 스케일을 절대적, 고정적인 지리적 단위로 간주하는 기존의 스케일 인식을 비판한다(박배균, 2012; Brenner, 2001; Delaney, 1997; Marston, 2000).³⁾ 세계화로 인해 NAFTA와 같은 국가를 초월한 정치·경제 스케일의 대두(Delaney, 1997)라든가, 1871년 이루어진 독일 통일 이전의 신성로마제국, 합스부르크 제국 및 독일 내 영방(領邦) 국가⁴⁾들의 역사적 영역 변동이 오늘날 독일, 체코인들의 국토 인식 및 지리 교과서 서술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례(Matušková and Rousová, 2014) 등은, 공간적, 영역적 스케일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 가변적으로 생산된다는 논의를 뒷받침한다.

공간 스케일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에 따라서 장소와 지역,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양상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지리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NAFTA라든가 유럽 연합과 같은 현대 정치·경제지리적 질서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가 스케일에만 고착된 인식론을 탈피하고 세계의 정치 및 경제 질서를 다양한 스케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인식 및 이에 토대한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오개념 극복 등과 같은 지리교육적 과제의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수업을 통하여 스케일에 따른 아프리카의 다양한 기후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과 오개념을 교정,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동민·최재영(2015)의 논의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2)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수업을 통한 도시의 다중스케일적 접근

살펴본 논의들을 토대로, 초등학교 사회과 지리 내용 중 도시 주제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초등학생들은 그들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맥락인 도시를, 스케일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다각

적, 다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이 도시를 단일스케일적으로 고착된 단편적 이미지만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도시에 대한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이해는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맥락에 대한 몰이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시 공간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적 스케일의 범위가 크지 않기에 이들에게 도시가 갖는 다중스케일적 속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할 경우 도시 공간에 대한 왜곡이나 몰이해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Holloway *et al.*, 2010). 즉 도시라는 지리학적 개념에 대한 오개념이나 몰이해는, 그들의 삶과 관련된 공간적 맥락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와 재현을 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왜 굳이 ‘초등학교’ 사회과 지리영역 수업에서 도시를 다중스케일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초등학교 교육은 어디까지나 기초, 기본에 관한 교육인데 어렵고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는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초등사회과의 내용 과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실을 상기하면,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수업에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자칫 수업 내용을 과다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김영석, 2007; 홍미화, 2011). 둘째,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에서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는 이미 이동민·최재영(2015)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런데 굳이 도시를 주제로 한 연구를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에서 도시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수업 방안을 이론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어디까지나 인식론의 문제이다. 즉, 본 연구는 도시 공간을 다중스케일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지, 학습지나 학습 내용 등을 추가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어질 3장에서 학습지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 내용의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돕기 위한 수업 방안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지, 학습 내용이나 자료의 추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⁵⁾ 둘째, 초등학교 시기부터 도시를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토대로 인식,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으로써, 도시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 위주의 단일스케일적으로 고착된 인식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초등학교 수업에서 '다중스케일적 접근'이라는 난해한 지리학적 인식론을 그대로 가르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과 지리영역 수업을 통해서 다중스케일적으로 도시 공간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도시 공간, 나아가 그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공간적 맥락을 다중스케일적 접근에 입각하여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은 지리교육적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셋째, 스케일과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문제는 학문적인 용어 자체로는 초등학생에게 어렵고 낯선 개념일지 모르나, 스케일 및 다중스케일 자체는 초등학생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들이 살고 있거나 또는 그들의 삶과 관련을 맺고 있는 도시 자체가 스케일과 무관한 공간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다(신정엽, 2015; 황진태·박배균, 2014; Holloway *et al.*, 2010). 따라서 도시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인식과 이해는 지리라는 교과교육적 측면에서는 물론, 인간의 공간적 삶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III.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도시 관련 수업에 대한 적용 방안

본 장에서는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에서 도시 관련 내용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 제시할 수업 방안은 이동민·최재영(2015)의 '다중스케일적 지역학습 활동'을 기본으로 하며,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수업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다중스케일적 학습활동

본 연구는 이동민·최재영(2015)이 개발한 '다중스케일적 지역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등사회과 지리영역에서의 다중스케일적 수업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⁶⁾ '다중스케일적 지역학습 활동'은 '지역 인식의 단일 스케일적 고착'을 역으로 접근하여 인지부조화를 유발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도시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부조화 유발을 고려하였다. 또한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 아니라,

교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다중스케일적 학습활동은 지역 이해의 기본 요소인 위치 지식(김다원, 2008)의 증진을 위해 위치학습 요소를 고려하고 있기에 이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활동은 1차시 정도의 수업 분량을 전제하여 계획되었으며, 기존의 교과서 또는 지도서 등에 제안된 활동에 추가시키는 활동이라기보다는 도시에 관한 내용을 다중스케일적 접근에 입각하여 지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다중스케일적 지역학습 활동'은 '기존 인식 확인→다중스케일적 접근→전체 정리'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인식 확인'이란 도시에 대한 기존의 단일스케일적 고착에 따른 오개념을 확인함으로써 인지부조화를 유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인지부조화는 기존의 도식에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학습의 동력은 물론, 단일 스케일에서 다중스케일로의 인식 전환을 이끄는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송언근, 2010). 이 단계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기존 인식을 단순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단계를 위해 학생들의 답변을 보드지 등에 기록해 둔다. 두 번째 단계인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다중스케일적 지역학습 활동'의 핵심 단계로 학생들은 대상 지역을 실제 여러 스케일에서 다루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특정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균질적·획일적 속성만을 가지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전체 정리' 단계에서는 '기존 인식 확인' 단계에서 기록한 보드지를 재확인하며 기존 인식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비교 정리한다. '다중스케일적 지역학습 활동'을 도시 관련 수업에 적용함에 있어 이 3단계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단일스케일적 고착을 최소화하고 도시 공간을 다중스케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함양하고자 한다.

2. 다중스케일적 학습활동을 통한 도시 관련 수업 방안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서 첫 번째 대단원인 '살기 좋은 우리 국토' 중에서도 도시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인 '3. 변화하는 우리 국토'를 중심으로 학습 활동 사례를 구성해 보았다. 활동의 첫 단계인 '기존 인식 확인' 단계에서

는 서울의 인구 분포에 대한 학생들의 기존 인식, 특히 ‘지역 인식의 단일 스케일적 고착’에 따른 오개념을 질의 응답을 통해 확인한다. 이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보드지에 기록해 둔다. 개인차와 지역차가 있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서울 전역이 빌딩과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기록이 끝나면 보드지는 일단 보이지 않게 돌려놓는다. 이후 인지부조화 유발을 위한 경관사진을 제시한다. 이동민 · 최재영(2015)의 사례에서는 아프리카의 기후에 대한 인지부조화 유발을 위해 고산 기후 경관과 온대 기후 경관 사진을 제시했는데, 본 활동에서는 벼가 자라는 도봉구 무수골의 논과, 중랑구 먹골의 배밭, 높은 건물이 거의 없는 구로구 오류동의 경관사진 등을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각 사진이 어디에서 촬영된 것 같은지 물어볼 수 있다. 이때 아파트 단지의 사진과 CBD의 사진 역시 함께 보여주며 다양한 답변을 이끌어 낸다. 이동민 · 최재영(2015)의 연구에서 아프리카의 고산이나 온대 기후의 경관을 담은 사진들이 학생들이 기존에 가진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에 인지부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었듯, 서울의 논과 밭, 낮은 건물의 경관사진들은 특히 서울을 빌딩숲으로만 생각하던 학생들에게 인지부조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다중스케일적 접근’단계에서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서울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다. 우선 국가스케일에서 서울의 인구분포를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할 수업 방안에서는 5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45페이지에 제시된 인구분포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전국의 인구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이 지도에서 서울은 전역이 붉은 점으로 빈틈없이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스케일에서만 접근할 경우, 서울에 대한 인식의 ‘단일 스케일적 고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인구 분포표로 학습을 한 학생들, 특히 서울에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서울의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서울의 모든 공간이, 봄비는 시간대의 강남역 근처와 같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스케일에서의 접근을 통해 서울의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국가스케일에서의 접근의 의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스케일에서만 인구 분포를 확인하는 것은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이어

지는 하위 스케일 활동들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스케일에 이어 도시스케일 활동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학습지를 예시로 개발하였다. 학습지는 총 2장이지만 첫 번째 장만 먼저 나누어 주어 활동을 진행한다. 이는 두 번째 장에 있는 자료들을 미리 봄으로 생각할 기회나 생각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시스케일 활동은 국가스케일에서 서울의 인구분포를 보았을 때와 달리 서울의 인구분포가 구별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이를 위해 학습지의 문제 1에서 학생들은 제시된 인구밀도표를 참고하여 서울시 구별 백지도에 3단계로 색을 칠하게 된다.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구밀도 통계자료는 행정구역 면적 당 인구수를 계산하여 인구밀도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는 녹지면적이나 강 등 실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구밀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학습지에 제시된 인구밀도 표는 구별 면적에서 하천과 녹지를 제외하여, 실제 인구밀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인구밀도를 5단계가 아닌 3단계로 나눈 이유는 인구 분포 패턴을 단순화 시켜서 시각적 효과와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이 손수 색연필로 단계구분도를 제작할 때 색연필의 색깔들이 보통 단계구분도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예시에서는 3단계를 검은색·회색·흰색으로 칠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 교사들은 교실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인구밀도를 단계구분도로 표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서울시 전체의 인구분포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구별로 인구밀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국가스케일에 고착된 인식의 틀을 깨고 지역적 특성을 한층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단계구분도가 완성되면 학생들은 발언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서울시의 인구분포 패턴에 대해 토론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수업 중 학생들이 가능한 많이 이야기 하게 하고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강조할수록 학생들은 정보의 수용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보 탐색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높일 수 있다(김성일 · 윤미선, 2004). 토론이 끝나면 학생들은 지도 옆에 제시된 경관사진들이 어느 구에서 촬영되었는지 추측해 본 후, 각 사진과

1. 아래 도표는 서울시 구별 인구밀도입니다. 인구 밀도가 30,000명 이상인 곳은 짙은 회색, 인구 밀도가 30,000~20,000이상인 곳은 회색, 20,000이하인 곳은 흰색으로 칠한 후 서울의 인구분포 패턴에 대해 토론 해 봅시다. 토론이 끝나면 각 사진들이 어떤 구에서 촬영된 것인지 생각해보고, 각 사진과 자신이 생각한 구를 줄로 이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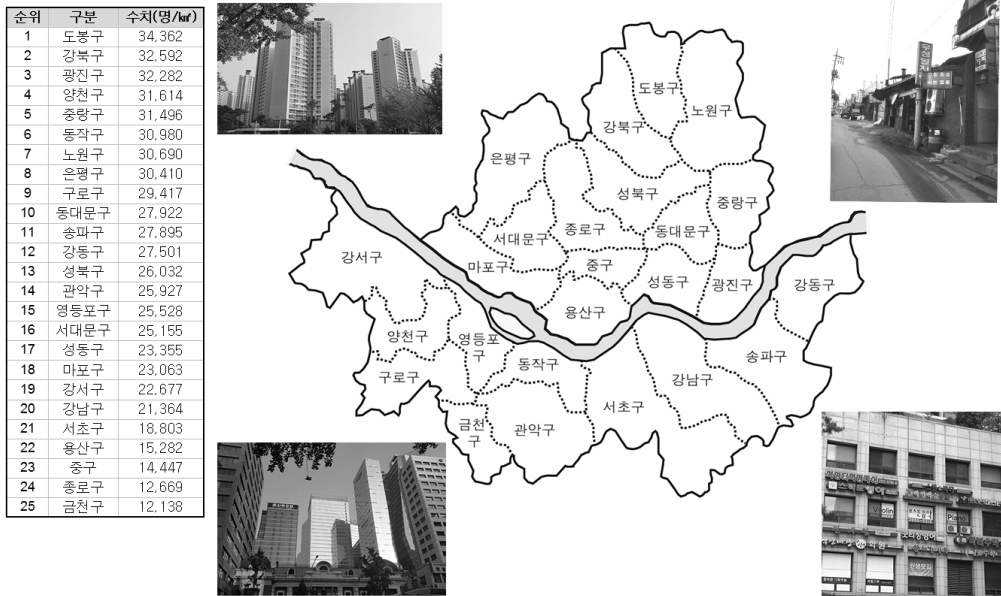


그림 1. 다중스케일적 학습활동 학습지 첫 페이지

촬영지로 생각되는 구에 줄을 그어 이어본다. 이 같은 활동은 학생들이 서울시의 구별 인구분포를 경관과 관련지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학습의 소소한 재미를 더해줄 수 있다.

서울시 인구 분포 패턴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학생들은 학습지 두 번째 페이지를 받게 되고, 인구 분포의 원인을 자료를 통해 생각해 보는 문제 2로 넘어가게 된다. 학생들은 문제 2에서 제시된 세 가지 자료들을 보며 자신이 만든 단계구분도에서 해당되는 구에 빗금을 긋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때 새로운 백지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중첩을 통해 학생들의 인구 분포 패턴 파악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시되는 자료의 양이 많을 경우 학생들이 느낄 외재적 인지 부하가 커질 수 있기에(최재영, 2013), 서울시 인구 분포와 관련된 자료로 주택 수 순위(1위~7위), 1km²당 주택 수 순위(1위~7위), 상업지구 비율 순위(1위~7위) 세 가지만을 제시하였다. 이때 구별 주택 수와 별도로 1km²당 주택 수를 제시한 이유는 구별 면적이 서로 다른 까닭에 단순히 구별 주택 수의 비교만으로는 구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단계구분도에 주택 수

와 1km²당 주택 수, 상업지구 비율이 높은 상위 7개구를 표시해 보면서, 인구 밀도가 높고 낮은 구들이 각 자료와 어떻게 중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구별 인구 밀도 차이의 원인을 추론할 실마리를 얻게 된다. 빗금을 다 치고 나면 제시된 자료들이 서울시의 인구 분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주택 수 순위와 1km²당 주택 수 순위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발문을 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생각하고 의미를 찾기 때문에, 질문을 촉진시키는 수업은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정영란·배재희, 2002).

다중 스케일적 접근 단계의 마지막 활동으로 학생들은 구(區) 스케일에서 인구 분포의 패턴을 탐구하게 된다. 서초구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동과 가장 낮은 동의 차이가 크고(양재 1동: 47,501명, 내곡동: 12,788명), 인구 분포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학생들이 지도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활동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일단 학생들은 3번에 제시된 지도를 보고 서울의 어느 구인지를

2. 아래 표들을 보고 해당되는 구에 빗금을 칠해 봅시다. 단, 표별로 다른 색으로 칠하세요.

아래 표들의 내용들이 구별 인구 분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 해봅시다.

또한 주택수 순위와 1㎢당 주택수의 순위가 왜 다른지 생각해봅시다.

〈주택수〉 (2014년)			〈1㎢당 주택수〉 (2014년)			〈상업지구 비율〉 (2014년)		
순위	구분	수치(호)	순위	구분	수치(호)	순위	구분	%
1	송파구	231,514	1	광진구	11848	1	중구	39
2	강남구	208,718	2	도봉구	11836	2	종로구	29
3	관악구	205,278	3	강북구	11810	3	영등포구	15
4	강서구	202,039	4	중랑구	11485	4	용산구	9
5	노원구	200,120	5	동작구	11364	5	송파구	9
6	은평구	174,249	6	노원구	10648	6	강남구	9
7	성북구	166,234	7	은평구	10601	7	동대문구	7

3. 아래 지도는 어느 구일까요? 서울시 전체 지도에서 찾아봅시다. (구)

오른쪽 표는 동별 인구수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동에는 빨간색을, 가장 적은 동에는 파란색을 칠해 보세요.



그리고 사회과 부도 p.15를 보며 서초구 동별 인구 분포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구분	인구수(명)
개포1동	22,163
개포4동	23,177
내곡동	12,788
반포1동	20,022
반포2동	24,152
반포3동	20,726
반포본동	34,004
방배2동	25,292
방배3동	26,179
방배4동	22,349
방배본동	17,479
서초1동	21,516
서초2동	22,530
서초3동	30,647
서초4동	28,466
양재1동	47,501
양재2동	23,976
잠원동	34,367

그림 2. 다중스케일적 학습활동 학습지 두 번째 페이지

맞추게 된다. 퍼즐 활동이 위치 지식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민호 · 이경한, 2013)에 착안하여 이동민 · 최재영 (2015)에서도 같은 방식의 활동이 시도되었으며, 놀이와도 같은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흥미를 높여줄 수 있다. 학생들이 제시된 지도가 무슨 구인지 맞추고 나면, 주어진 도표를 보고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동과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동을 찾아 채색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 후 교사는 학생들이 사회과 부도를 참조하여 서초구의 인구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해 보도록 안내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되, 질의와 답변을 통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서초구의 경우 우면산과 청계산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형

적 특성이 동별 인구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회과 부도를 보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단계인 ‘전체 정리’ 단계에서 교사는 보드지를 다시 꺼내 기존 인식의 재확인 및 스케일에 따라 학생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한다. 기존 인식과 변화된 인식의 비교는 단일 스케일에 고착되어 있던 틀을 명료하게 보여주며, 서울시의 인구 분포가 서울시 전역에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케일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의 유연성을 키워 줄 수 있다. 또한 본 활동은 단순히 다양한 스케일에서 인구 분포를 확인해보는 것은 물론 그 이유를 경관 사진과 통계 자료, 지형도와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학생들의 지리적 추론 능력을 함양코자 하였기에, 전체 정리를 통하여 그 추론 과정을 되짚어 보는 마지막 단계는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각 학생 및 각 모둠마다 추론 과정이 상이할 것이기에, 교사의 역할은 전체 정리 단계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도시에 대한 이해는 지리학에서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는 인구와 기능, 시설 등이 한정된 공간에 밀집함으로 인해 그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경관 등이 종합적, 복합적으로 구조화된 패턴을 이룬다. 따라서 이 같은 도시 공간은 단일스케일적으로 고착된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닌 다중스케일적 공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도시는 다수의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이 생활하고 성장해 가는 삶의 맥락이라는 점에서 초등학생들의 도시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이해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도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방안의 사례 지역인 서울특별시는 국가스케일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대도시이지만, 스케일을 좁혀 보면 인구 분포 및 도시 경관이 서울시내 전역에 걸쳐 균질한

양상이 아니라 스케일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특정 스케일에 고착되어 서울을 인식하고 있을 수 있으며, 다중스케일적 학습활동은 이를 역이용하여 인지부조화를 유도함으로 학습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스케일별 활동을 통해 서울이 다양한 기능과 특성, 경관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고, 스케일에 따른 기능, 특성, 경관 등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 하는 이유까지도 추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도시에 대한 단일스케일적 고착에서 벗어나 다중스케일적 인식을 기르게 하며, 지리 교과와 중요한 내용 요소인 동시에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공간적 맥락인 도시를 보다 심층적,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수업 적용 방안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다중스케일적 지리 수업 방안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실제 수업에서는 서울특별시 외에도 다양한 도시들을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의 도시들이 가진 특성, 구조, 경관 등을 다중스케일적 수업 활동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수업은 초등학생들의 도시에 대한 지식이나 인지적 이해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이해나 이미지, 심상지도 등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다 심층적,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면, 다중스케일적 접근에 입각한 초등학교 사회과 지리영역 수업의 의의와 가능성에 대해서 한층 심도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註

- 1) 중국에서 국가경제 개발 및 개혁의 추진을 위해 경제발전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가진 지역에 설치한 구역을 국가급 신구라고 하며, 중국 중앙정부(국무원)의 비준을 통해 설립된다(박철현, 2016). 그에 따르면 최초의 국가급 신구는 1992년 지정된 상하이 푸둥신구(浦東新區)이며, 량장신구(兩江新區)는 2010년 지정되었다. 아울러 량장

신구는 엄밀히 말해 도시가 아니라 도시 안에 형성된 국가급 신구이지만, 이는 충칭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급 신구라는 점에서 도시 스케일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간 단위라고 판단되어 도시에 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로 제시하였다.

- 2)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촌락에서 나고 자라는 등 도시와 ‘무관한’ 아동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가 아동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공간적 맥락이라는 논의를 모든 아동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촌락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여 도시로부터 완전히 고립, 절연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아동들이 현재 시점에서 촌락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생활 및 성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도시와 관련을 맺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이다(Holloway, 2010). 도시가 아동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공간적 맥락이라는 논의는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3) 스케일은 한국어에서 축척, 규모, 범위 등의 용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다중스케일적 접근’이란 ‘다양한 공간적 규모를 고려한다’라거나 ‘장소, 공간, 지역 등을 다양한 층위에서 바라본다’와 같은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지리학에서 사용되는 ‘스케일’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축척이나 규모와 같은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인문·자연지리적 현상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다양한 공간적 범위 또는 단위라는 의미, 다시 말해 지리학의 인식론적 단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박배균, 2012; Brenner, 2001).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케일’이라는 용어를 ‘범위’, ‘규모’ 등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 4) 17-19세기 독일 일대에 분포했던 크고 작은 왕국 및 제후국들을 일컫는 말로서, 이 국가들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이후 신성로마제국의 권위가 실추되는 가운데 제국령 내 지방 통치가 사실상 지방 제후들의 손에 넘어가며 형성되었으며, 19세기에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제국)를 배제한 채 수백 개에 이르던 이들 영방국가들을 자국 주도로 통합한 결과였다(장명학, 2011).
- 5) 이동민·최재영(2015)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 6) 이동민·최재영(2015)의 모형은 초등학교 사회과 지리 영역 수업에 대한 적용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 모형에 바탕한 수업 방안이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에 적용하는데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6, 「사회 5-1」, 동아출판(주).
- 김다원, 2008, “지역 이해를 위한 위치 지식과 위치 학습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2), 145-162.
- 김다원·한건수, 2012, “‘사실’과 ‘재현’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다시 보기: 초중학교 사회 교과서 아프리카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7(3), 440-458.
- 김성일·윤미선, 2004, “학습에 대한 흥미와 내재동기 증진을 위한 학습환경 디자인,” 교육방법연구, 16, 1-28.
- 김영석, 2007, “사회과 교과서의 문제와 개선 방향,” 사회과교육연구, 14(2), 1-13.
- 박배균, 2012,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1), 37-59.
- 박철현, 2016, “중국 발전모델 전환형 특구의 형성: 충칭 량장신구(兩江新區)에 대한 다중스케일 분석,” 공간과 사회, 26(2), 80-131.
- 송언근, 2010, “양동 마을 입지 탐구에 토대한 지리 탐구과정의 구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1), 37-58.
- 신정엽, 2015, “시애틀의 도시 공간 특성: 역동성과 다양성,” 한국지리학회지, 4(1), 119-137.
- 이동민·최재영, 2015,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지리교육적 의의와 가능성: 초등사회과 세계지리 영역에서의 지역 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2), 1-17.
- 이민호·이경한, 2013, “초등학생의 세계지리 기본 위치 지식의 증진을 위한 실험 연구 - 퍼즐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1), 17-29.
- 장명학, 2011, “제국(empire)과 영방(territorial state)의 긴장 속의 신성로마제국 정부,” 한·독사회과학논총, 21(2), 31-54.
- 정영란·배재희, 2002, “연구논문: 질문 강화 수업이 중학생들의 질문 수준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4), 872-881.
- 정진규, 2014, “아동의 도시 지리학과 아동 중심 접근: 고찰 및 성찰,” 한국지리학회지, 3(2), 159-174.
- 조명래, 2009, “한국의 도시지식에 관한 고찰: 1980년대

- 후반 이후의 도시상황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2, 91-137.
- 채희원·신정엽, 2015, “수도권 도시 공간의 사회적 다양성 변화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4(1), 139-15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웹사이트(<http://ncic.go.kr/>, 최종 접속일: 2016. 12. 7.)
- 홍미화, 2011, “2007 개정 사회교과서 활용에 따른 초등 사회과 수업 변화,” 사회과교육연구, 18(2), 125-142.
- 황진태·박배균, 2014,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1969-73년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 과정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1), 1-27.
- Brenner, N., 2001, The limits to scale? Methodological reflections on scalar structur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4), 569-589.
- Delaney, D., 1997,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scale, *Political Geography*, 16(2), 93-97.
- Heffron, S.G. and Downs, R.M. eds., 2012. *Geography for Life: National Geography Standards*, 2nd edition,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 Holloway, S.L., Hubbard, P.J., Jöns, H., and Pimlott-Wilson, H., 2010, Geographies of education and the importance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5), 583-600.
- Jordan-Bychkov, T.G., and Jordan, B.B., 2002, *The European Culture Area: A Systematic Geography*, Lanham, M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김종규 역, 2007, 「유럽: 문화지역의 형성과정과 지역구조」, 시그마프레스).
- Kaplan, D.H., Holloway, S.R., and Wheeler, J.O., 2014, *Urban Geography*, 3rd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 Lambert, D. and Balderstone, D., 2010, *Learning to Teach Geography in the Secondary School*,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 Marston, S.A., 2000,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a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2), 219-242.
- Matušková, A. and Rousová, M., 2014, Czech-German relations in the context of shadows of the past and geographical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113(1), 10-19.
- Pacione, M., 2009, *Urban Geography: A Global Perspective*, 3r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Schneider, A., Friedl, M.A., and Potere, D., 2010, Mapping global urban areas using MODIS 500-m data: New methods and datasets based on ‘urban ecoregions’,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114(8), 1733-1746.
- Winchester, H.P.M., 1991, The ideal of commun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n Nicholson, J.L. ed., *Feminism/Postmodernism*, New York: Routledge, 299-323.
- 교신 : 최재영,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image7@snu.ac.kr)
- Correspondece : Jae Yung Choi,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image7@snu.ac.kr)
- 투 고 일: 2016년 11월 25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9일
투고확정일: 2016년 12월 16일

